

정례브리핑

2020.02.21(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11시 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이 정도이고, 질문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내에서 독감하고 폐렴환자 10여 명이 사망했다는 등 코로나19 발병설이 또다시 제기되는 모양새인데요.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지금 우리 측 발생현황이나 북한 동향 또 이런 상황, 북한 동향에 대해서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런 북한의 발병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보도나 이런 발표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제적십자연맹이 유엔 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승인이 나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전달에 있어서, 의료용품이나 이런 것들 전달할 때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향후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그런 코로나19 관련 방역협력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이런 곳들과 긴밀하게 상황,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지금 어제오늘 추가로 어떤 국제기구나 이런 쪽에서 우리 정부에 지원협력 같은 게 요청 들어온 게 있는지요?

<답변> 방역물자 지원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남측 민간단체와 북측과의 접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측에 방역물품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승인요청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답변> 동일한, 국제기구와 동일합니다만 민간단체도 마찬가지로 아직 구체적인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고 현 단계에서 특별히 더 확인해 드릴만 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북한매체가 우리 측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소식을 굉장히 신속하게 전했는데 과거 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때도 이렇게 신속하게 소식을 보도하거나 이런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빨리 보도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북한매체에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북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국가비상방역체계 선포하고 비상방역지부를 조직하는 등 관련 동향을 연일 보도하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과거에도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보도를 했던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답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나온 질문에 연결되는 건데요. 국내단체들이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통일부에 승인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제... 기본적으로 정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나 대북지원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관련 협력을 공식 요청해 올 경우 정부는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나 신년기자 회견 통해서 밝히신 여러 가지 대북사업들에 대해서 북한이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금 한 달 이상 흘렀는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하고, 그동안 해 오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밝히신 바 있듯이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입장에 따라서 접경협력, 개별관광, 철도, 스포츠 교류 등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얘기인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향후 진정국면 조성됐을 때 속도를 낼 수 있게 그간 얘기해 왔던 개별관광 계획 등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북협력계획 등은 현재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지요?

<답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셨던 그런 남북협력사업들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현실적 방안들을 강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끝>